



이범호(왼쪽)와 김주찬.

KIA 2016 시즌 주장은 누구

## 이범호 '3선'이냐...새 인물이냐

김주찬·신종길·나지완 등 물망

‘캡틴’은 무거운 이름이다.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리더십은 물론 실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까다로운 이름이다.

내년 시즌 유니폼에 캡틴을 상징하는 ‘C’를 달고 뛰게 될 호랑이는 누가 될까? 이범호(34)의 3선과 새로운 주장을 놓고 KIA의 선택이 이뤄진다.

2016시즌을 이끌어 나갈 각 팀의 주장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NC의 이종욱(35)이 2년 연속 주장 완장을 차게 됐고, 삼성은 베테랑 박한이(36)에게 주장 자리를 맡겼다. SK는 김강민(33), 넥센은 서건준(26)을 선수단을 대표하는 얼굴로 선정했다.

조용한 스토브리그를 보내고 있는 KIA의 주장 선임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앞서 KIA는 감독 추천과 선수단 투표를 통해 주장을 정해왔다. 선동열 감독의 권유로 2014년 주장 자리를 맡은 이범호는 지난해에는 선수단 투표로 다시 주장으로 선임됐다.

이범호가 2년 연속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일단 교체론이 우세하다. 새로운 주장 후보로 낙점된 사람은 베테랑 김주찬(34), 지난해 주장 후보로 나섰던 신종길(33), 선수단 중간 허리인 나지완(30) 세 명이다.

일단은 사령탑 김기태 감독의 의중이 중요하다.

이범호는 “투표를 해야 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년 더 고생하라고 하면 기꺼이 할 생각이지만 내가 2년을 했으니까 자리를 넘기는 게 맞는 것 같다. 감독님과 이 부분을 상의해서 결

정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범호가 짐을 내려놓게 된다면 내달 13일에 주장을 뽑는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향과 해외에서 12월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KIA 선수단은 1월13일 체력테스트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그리고 이를 뒤인 15일 1차 스프링캠프 지인 미국 애리조나로 떠난다.

이범호는 “감독님의 의중을 잘 알아야 하고, 그 부분을 선수들에게 잘 전달해야 하는 자리다. 선배들에게도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하고 많은 이들을 아우르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다”며 “내 야구도 해야 하고, 후배들을 챙기면서 야구를 해야 하는 자리다”고 주장 자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직 이범호의 자리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내년 시즌과 미래에 대한 준비·계획은 확실하다.

이범호는 “이미 시즌 준비는 시작했다. 웨이트를 하면서 몸을 만들고 있다. 내년도 중요하고 앞으로 계약해놓은 시즌까지 잘 해내는 게 중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쏟고, 이루고 나서 스스로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하면서 야구를 그만 두고 싶다. 그래서 매년 준비를 잘하려고 한다”며 “오래 선수생활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고, 이곳에 있는 시간이 좋아서 다시 KIA를 선택했다. 야구장도 좋고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도 좋다. 잘 준비해서 내 역할 잘하고 꼭 우승도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300홈런 1000타점 선수가 되어 그라운드를 떠나고 싶다”고 밝혔다.

/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30m 롱토스’ 류현진 재할 순조롭다



왼 어깨 수술을 받고 부활을 준비중인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30m 롱토스 장면을 공개하며 순조로운 재할을 알렸다.

자신이 목표로 삼은 ‘정상적인 스프링캠프 합류’에 청신호를 쫓았다. 류현진의 국내메니지먼트 에이즈팩코퍼레이션은 17일(이하 한국시간) “류현진이 수술 후 가장 힘 있게 롱토스를 했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30m 롱토스를 하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영상을 올렸다. 그는 “다시 공을 던져 기분이 좋다”고 적기도 했다.

5월 22일 어깨 수술을 받고 재활에 들어간 류현진은 11월부터 30m 거리에서 공을 던졌다. 단계별 투구프로그램(ITP)에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단계다. 그리고 공의 속도를 점점 높였다.

에이즈팩코퍼레이션은 “이 정도 거리에서 저렇게 힘을 댄 건 처음”이라며 “류현진이 순조롭게 재활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현진은 지난달 14일 귀국해 개인 일정을 최소화하며 국내에서도 재활을 이어가다 6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출국을 앞두고 만난 류현진은 “재활 과정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몸 상태는 좋다. 스프링캠프에 정상적으로 합류해 시즌 초반에는 던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류현진은 곧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후 내년 1월 중순께 스프링캠프 합류를 준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KBO 연습생 ‘메이저리거 신화’

김현수, 볼티모어와 2년 700만달러 계약  
신고선수 9년만에...FA 첫 美 진출

‘타격 기계’ 김현수(27)가 미국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계약에 합의하면서 한국프로야구의 메이저리그 도전사에도 한 획을 그었다.

김현수는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에 이어 네 번째로 KBO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선수가 됐다. 앞선 세 명은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바리거가 됐고, 김현수는 KBO리그 자유계약선수(FA)로는 처음으로 미국 진출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신고선수(현 육성선수) 출신이 KBO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한 뒤 ‘꿈의 무대’ 메이저리그에까지 서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현수는 신인이고 재학 시절 ‘이영민타격상’을 받을 만큼 타격에 재능이 있었다. 그러나 외야수로서 발이 느리고 수비가 약하다는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200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프로팀의 지명을 받지 못했다. 결국 김현수는 2006년 두산 베어스에 연습생 신분인 신고선수로 계약없이 연봉 2000만원만 받고 입단했다.

프로 데뷔 첫해 1경기밖에 나서지 못한 김현수는 2007년 99경기에서 타율 0.273을 기록하며 자신을 향한 편견을 깨뜨리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타율 0.357로 타격왕에 올랐다. 2008년과 2009년에는 2년 연속 최다안타 타이틀을 거머쥐며 리그를 대표하는 원소 타자로 자리매김했다.

김현수의 KBO리그 통산 타율은 0.318로 역대 4위에 해당한다. 올해에는 0.326의 고타율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한 시즌 최다인 28개의 홈런을 쳐내 ‘확실한 중장거리포’의 입지를 굳혔다. 김현수의 장점은 꾸준함에 있다. 그는 시즌 100경기 이상을 뛰기 시작한 2008년부터 올해까지, 2012년(타율 0.292)을 제외하고 7시즌이나 타율 3할을 넘기며 기록없는 플래이를 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은 이어졌다.

태극마크를 달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 2010년 광주·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힘을 보탤었다. 올해에는 역대 대표팀 중 최약체라는 평가에도 프리미어12 첫대회에서 한국의 우승에 기여하고 대회 최우수선수로도 뽑혔다.

김현수의 재능과 가능성은 미국에서도 알아봤다. 볼티모어뿐만 아니라 애들랜트 브레이브스, 오글랜드 애슬레틱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등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김현수에 관심을 보였다. 현지 언론의 호평도 끊이지 않았다. 미국 야후스포츠는 “김현수는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가장 꾸준한 타자 중 한 명”이라면서 “박병호나 이대호처럼 힘이 뛰어나지 않지만 타격능력이 정말 좋은 선수”라고 소개했다. 폭스스포츠는 “김현수가 올해 630타석에 들어서 101개의 볼넷을 골랐고 삼진은 63개에 불과했다”고 그의 콘택트 능력에 주목한 뒤 “이런 타자는 올해 메이저리그에서도 없었다”면서 일찌감치 김현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을 크게 내다봤다.

선수 이적에 관한 전망은 빛나갈 때가 적지 않다. 하지만 김현수에 대해서는 달랐다. ‘한국산 타격 기계’ 김현수가 2016년에는 메이저리그 무대에 오른다. /연합뉴스



## 좌타·외야수 기근 볼티모어...부사장이 영입 주도

김현수(27)가 한국프로야구에서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어 미국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첫 번째 선수가 된다. 메디컬테스트를 통과하면 ‘역사’를 완성한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지역 볼티모어 선은 17일(이하 한국시간) “한국 외야수 김현수가 2년 700만달러(약 82억5000만원)에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입단 합의했다. 메디컬 테스트가 끝나면 계약이 성사된다”고 보도했다. 마침 김현수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는 행선지와 출국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현지 보도로 볼티모어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자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이 확인됐다.

‘좌타 외야수 보강’을 이끈 스토브리그 목표포 삼은 볼티모어는 김현수 영입에 힘썼다.

볼티모어는 올해 매니 마차도, 애덤 존스 등 우타자 중심포 라인업을 짰다. 또한 외야수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원소 거포 크리스 데이비스와 계약도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프로야구에서 개인 통산 타율 0.318을 기록한 정교함에, 올해 28홈런을 치며 장타력까지 선보인 김현수는 충분히 눈독 들일만 한 카드였다. 한국 야구에 관심이 많은 댄 듀켓 부사장이 전면에 나서 김현수 영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에 앞서 한국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선수는 3명이다.

2013년 12월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 2015년 1월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 최근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 등 메이저리그 계약에 성공한 3명은 모두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과정을 거쳤다.

포스팅 신청부터 계약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포스팅 최고 응찰액을 적어낸 한 구단과 협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FA인 김현수는 자유롭게 협상했고,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어떤 팀

창단	1901년
소속 리그	MLB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구단명	밀워키 브루어스(1901),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1902~1953)
주요성적	·월드시리즈(1966, 1970, 1983) 통산 3차례 우승 ·아메리칸리그 7회 우승 ·2015년 81승 81패, 승률 0.500의 성적으로 지구 5개 팀 중 3위
주요 선수	(2015년 성적) 3루수 : 매니 마차도(23) 162경기 타율 0.286, 홈런 35, 타점 86
감독	빅 쇼틀러
홈구장	오리올 파크 앳 캠펙 야드(1992년~) 수용인원 48,188명